

THE UNITED





INCHEON UNITED 2023 SQUAD



조성환 감독
HEAD COACH



김한운 수석코치
COACH



박용호 코치
COACH



김재성 코치
COACH



변재섭 코치
COACH



김이섭 GK코치
GK COACH



오지우 피지컬코치
PHYSICAL COACH



김광석 스카우트
SCOUT



황근우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피민혁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진도형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최재혁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김민석 팀매니저/통역
TEAM MANAGER



조용희 장비담당관
KIT MANA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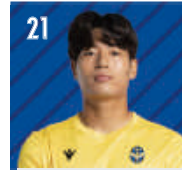
육태훈 전력분석관
PERFORMANCE ANALYST



박준성 통역
INTERPRE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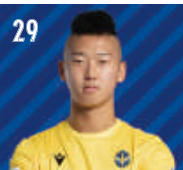
김동현
GOAL KEEPER



이태희
GOAL KEEPER



민성준
GOAL KEE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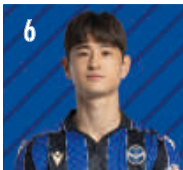
김유성
GOAL KEEPER



김연수
DEFENDER



오반석
DEFENDER



문지환
DEFENDER



강윤구
DEFE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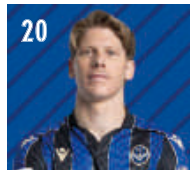
정동윤
DEFENDER



임형진
DEFENDER



김준엽
DEFENDER



델브리지
DEFENDER



김건희
DEFENDER



김동민
DEFENDER



권한진
DEFE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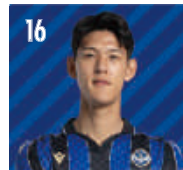
이명주
MIDFIELDER



김도혁
MIDFIELDER



신진호
MIDFIELDER



이동수
MIDFIELDER



여름
MIDFIELDER



박현빈
MIDFIELDER



민경현
MIDFIEL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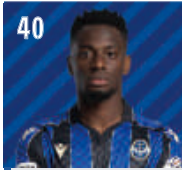
최우진
MIDFIELDER



김현서
MIDFIEL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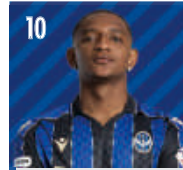
박진홍
MIDFIEL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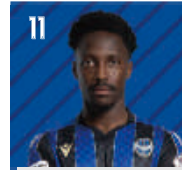
음포쿠
MIDFIELDER



김세훈
MIDFIELDER



에르난데스
FORWARD



제르소
FORWARD



송시우
FOR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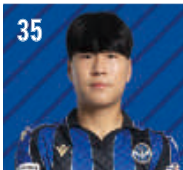
지언학
FORWARD



김민석
FORWARD



김보섭
FOR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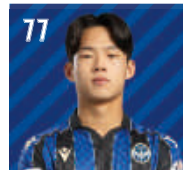
하동선
FOR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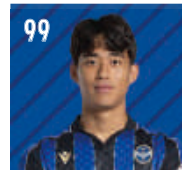
홍시후
FORWARD



김대중
FORWARD



박승호
FORWARD



천성훈
FORWARD



INCHEON UNITED MATCH SCHEDULE

01R	02월 25일(토) 20:30	2	서울 : 인천	1	서울월드컵
02R	03월 04일(토) 14:00	3	인천 : 대전	3	인천축구전용
03R	03월 12일(일) 16:30	1	인천 : 제주	0	인천축구전용
04R	03월 18일(토) 14:00	5	광주 : 인천	0	광주축구전용
05R	04월 01일(토) 16:30	0	인천 : 대구	0	인천축구전용
06R	04월 09일(일) 16:30	2	전북 : 인천	0	전주월드컵
07R	04월 16일(일) 14:00	0	강원 : 인천	2	춘천송암
08R	04월 22일(토) 19:00	2	인천 : 수원FC	2	인천축구전용
09R	04월 25일(화) 19:30	0	인천 : 울산	1	인천축구전용
10R	04월 30일(일) 15:00	0	포항 : 인천	2	포항스틸야드
11R	05월 05일(금) 16:30		인천 : 수원		인천축구전용
12R	05월 10일(수) 19:30		제주 : 인천		제주월드컵
13R	05월 14일(일) 16:30		인천 : 전북		인천축구전용
14R	05월 20일(토) 16:30		인천 : 광주		인천축구전용
FA컵	05월 24일(수) 19:00		인천 : 경남		인천축구전용
15R	05월 27일(토) 19:00		대구 : 인천		대구구원체육
16R	06월 04일(일) 16:30		대전 : 인천		대전월드컵
17R	06월 07일(수) 19:30		인천 : 서울		인천축구전용
18R	06월 11일(일) 19:00		수원 : 인천		수원월드컵
19R	06월 25일(일) 16:30		인천 : 포항		인천축구전용
20R	07월 02일(일) 20:00		인천 : 강원		인천축구전용
21R	07월 08일(토) 19:00		수원FC : 인천		수원종합
22R	07월 12일(수) 19:00		울산 : 인천		울산문수
23R	07월 16일(일) 20:00		인천 : 대전		인천축구전용
24R	07월 22일(토) 19:30		서울 : 인천		서울월드컵
25R	08월 06일(일) 19:00		전북 : 인천		전주월드컵
26R	08월 13일(일) 19:30		인천 : 대구		인천축구전용
27R	08월 18일(금) 19:30		인천 : 광주		인천축구전용
28R	08월 25일(금) 19:00		수원FC : 인천		수원종합
29R	09월 02일(토) 19:00		인천 : 포항		인천축구전용
30R	09월 16일(토) 14:00		인천 : 제주		인천축구전용
31R	09월 24일(일) 16:30		강원 : 인천		강릉종합
32R	09월 30일(토) 19:00		인천 : 수원		인천축구전용
33R	10월 08일(일) 15:00		울산 : 인천		울산문수

- 상기 경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AFC 챔피언스리그와 FA컵 일정은 추후 발표 될 예정입니다.
- 변경 된 경기 일정과 경기 관련 소식은 인천유나이티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s SUWON PREVIEW

승리가 고픈 인천, 침체기에 빠진 수원을 잡아라

글 = 손지호 UTD기자 (thswlgh50@qjou.ac.kr)

인천의 5월 첫 홈경기 상대는 수원상성이다. 4월 30일 10라운드 포항 원정 승리 이후 치르는 홈경기다. 인천과 수원은 정반대의 팀 분위기를 갖고 있다. 인천은 길었던 무득점의 굴레에서 벗어나 점차 팀 조직력이 좋아지고 있다. 반대로 수원은 개막 후 단 한 경기의 승리도 없이 10경기 무승의 늪에 빠졌다. 최근 이병근 감독의 사임까지 겹치며 시즌 초반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인천은 지난 시즌 수원을 상대로 1승 2무의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첫 맞대결이었던 인천 홈에서 무고사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고, 1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는 두 팀 모두 득점 없이 0-0 무승부를 거뒀다. 이후 31라운드 원정에서 이강현, 김대중, 김민석이 연달아 득점하며 3-3 극적인 무승부를 만들어냈다.

수원은 지난 시즌 정말 힘든 한 해였다. 하위 스플릿으로 내려간 것도 모자라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다녀오며 강등의 문턱까지 다녀왔다. 당시 안양과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연장 승부 끝에 극적으로 승리하며 K리그 1 생존에 성공했다. 수원은 축구 도시라는 별명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심기일전하며 전력 보강에 나섰다. 김보경, 김경중, 아코스티를 FA로 영입하고 지난 시즌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물리치까지 데려오며 주축이었던 오현규의 공백을 채웠다. 여기에 고승범과 바사니의 합류로 중원 보강까지 성공했다.

수원은 아코스티, 전진우의 돌파 능력과 김보경, 고승범의 안정감 있는 중원 운영을 기반으로 공격을 풀어간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결정력

의 부재다. 문전 앞까지 공격 전개는 원활하지만 골문으로 향하는 슈팅의 수는 현저히 적었다. 슈팅 수는 리그 전체 1위지만 유효 슈팅 숫자는 한참 못 미친다. 득점 수도 12개 팀 중 11위에 위치한다. 하지만 공격만 문제가 아니다. 수비도 불안하다. 현재 18실점으로 12개 팀 중 최다 실점 허용하고 있다. 아직까지 수비 조직력이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 실점으로 이어졌다. 인천은 이 부분을 이용해 득점을 노릴 필요가 있다.

인천과 수원의 통산 전적은 9승 18무 29패로, 인천이 통산전적에선 매우 열세다. 하지만 수원과의 최근 5경기에서는 2승 2무 1패로 우세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시즌에 역대 가장 큰 침체기를 보내고 있는 수원이기에 인천은 홈에서 반드시 승리를 따내야 한다.



vs JEONBUK PREVIEW

인천, 홈에서 전북 상대로 복수를 노린다

글 = 손지호 UTD기자 (thswlgh50@qjou.ac.kr)

인천의 5월 두 번째 홈경기 상대는 전북현대이다. 이번 시즌 첫 맞대결이었던 지난 4월에 치른 6라운드 전북 원정에서 마주한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재대결이다. 당시 인천은 분투했지만 아마노 준과 하파 실바에게 연달아 실점하며 아쉬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전북은 지난 시즌 팀 득점과 최소 실점 전체 2위로 매 경기 매서운 공격력과 탄탄한 수비력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며 디펜딩 챔피언으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 미끄러지며 라이벌 울산에게 왕좌를 내어주며 최종 2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매 시즌 좋은 모습을 보였기에 리그 우승을 놓친 전북은 아쉬운 한 해를 보냈었다. 이번 시즌에는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함께 새로운 선수를 다수 영입하며 새 시즌 준비를 철저히 했다.

전북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굳건한 1선발 골키퍼였던 송병근을 포함해 김보경, 바로우 등 지난 시즌 제 역할을 해주던 선수들을 떠나보냈지만 국가대표 출신의 핵심 자원들을 거의 대부분 지켰다. 하지만 지난해 라이벌 울산에게 리그 우승을 내어주었기에 더욱 탄탄한 스쿼드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김건웅, 정태욱, 아마노 준, 이수빈 등 리그에서 정상급 실력을 보여준 선수들을 모두 영입하고 이동준, 하파 실바, 안드레를 데려오며 부족했던 공격진 보강에 성공했다. 다시 리그 정상 자리를 되찾아 오겠다는 전북의 굳건한 의지가 보이는 이적시장 행보였다.

전북은 유독 스피드가 뛰어난 공격수가 즐비하다. 송민규, 문선민, 이동준 등 이들이 측면에서 얼마나 활약하느냐 따라 전북의 경기 결과가 갈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더해서 외국인 선수들의 파괴력이 합쳐지면 공격진의 날카로움이 배가 된다. 인천은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은 리그 초반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팀의 전술적인 부분으로 얻어낸 승리보단 선수 개개인의 능력으로 어렵게 얻어낸 승리가 대부분이었다. 국내급 스쿼드라는 평이 많았지만 지난 시즌만큼의 날카로운 모습 보이지 않으며 리그 하위권에 속해 있다.

인천과 전북의 통산 전적은 14승 19무 22패로 통산 전적에선 열세하다. 하지만 지난 시즌 4번의 맞대결에선 1승 1무 2패로 홈에서 승리를 챙긴 기억이 있다. 지난 4월 맞대결에서도 좋은 경기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가져오지 못해 더욱 아쉬움이 컸다. 인천이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복수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자.





5월 20일(토) 16:30
@인천축구전용경기장

vs GWANGJU PREVIEW

원정에서 대패했던 인천, 홈에서 광주 상대로 설욕전 펼친다

글 = 손지호 UTD기자 (thswlgh50@qjou.ac.kr)

인천의 5월 마지막 리그 홈경기 상대는 이번 시즌 승격팀의 반란을 이끌고 있는 광주FC다. 승격 첫 시즌이지만 급세 적응하며 4승 1무 5패로 6위에 자리 잡고 있다. 인천은 지난 4라운드 광주 원정에서 아사니에게 헤트트릭을 내주며 0-5로 대패했던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주춤하고 있는 광주를 상대로 홈에서 설욕전에 나선다.

광주는 지난 시즌 40경기에서 단 4패만을 거두며 압도적인 성적으로 K리그 2 우승이라는 결실을 맺으며 강등된 지 한 시즌만에 승격에 성공하는 저력을 보여준 팀이다. 특히 팀의 득점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났다. 특정 선수 한 명이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공격진 모두가 골고루 득점력을 뽐냈다. 광주는 1+2 승강제로 K리그 1에서의 잔류 난이도가 어려워진 만큼 승격한 첫 시즌에 절대 강등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와 함께 선수를 다수 영입하며 새 시즌 준비를 철저히 했다. 광주는 지난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인 헤이스와 핵심 중원 자원인 김종우를 떠나보내며 전력 공백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엄지성, 이권희, 허을 등 공격진의 주축 선수들이 팀에 남았고 여기에 아사니와 토마스가 팀에 합류하면서 날카로운 움을 더했다.

광주는 올 시즌 리그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하지만 이후 2연패를 달리며 혹독한 K리그 1 적응기를 보내고 있다. 광주는 이정효 감독 특유의 강한 압박을 기반으로 한 전술을 사용한다. 압박으로 뺏어낸 볼을 측면에 엄지성과 아사니의 속도를 살려 득점을 노린다. 실제로 지난 4라운드 광주 원정에서 상대의 강한 압박과 측면 공격으로 대량 실점한 바 있다. 또한, 광주는 지금까지 4골 이상의 다득점 경기가 두 번

이나 있었고 9명의 선수가 골 맛을 보는 등 공격 축구 색채가 짙은 팀이다. 원정에서의 수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인천과 광주의 통산전적은 6승 12무 7패로 조금 열세하다. 특히 최근 광주와의 맞대결에서 대량 실점으로 패배한 경기가 많았고 득점도 10경기 7골로 광주보다 절반이나 적었다. 하지만 인천은 그때 보다 더욱 강해졌다. 인천은 5월까지 경기를 치러오면서 지난 3월 맞대결했을 때 보다 더욱 조직적으로 완성도를 높여갔다. 인천이 지난 광주 원정에서의 뼈아픈 패배를 홈에서 갚아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자.



‘인천의 20번’ 델브리지, 등번호가 지닌 의미 이어가고파

글 = 박범근 UTD기자 (keu0617@naver.com)



프로 스포츠에서 레전드를 기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영구결번이다. 뛰어난 활약을 한 선수의 등번호를 아무도 달 수 없게 해 그 선수만의 번호로 남긴다. 반면, 인천유나이티드는 영구결번 대신 등번호를 계승한다. 임종용이 등번호 20번을 달고 인천의 레전드 센터백이 된 이후, 인천은 임종용의 뒤를 이을 센터백들에게 등번호 20번을 선사한다. 그렇게 인천의 20번은 팀 최고의 수비수를 상징하는 번호가 되었다. 2023년 현재 인천의 20번, 즉 팀의 핵심 수비수는 바로 델브리지다. 등번호 20번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인천 수비의 핵심 델브리지를 UTD기자들이 만나봤다.



1부 - 델브리지와 2023년

델브리지 인터뷰는 총 세 파트로 나눠 진행했다. 1부는 2023시즌, 2부는 한국 생활, 3부는 인천유나이티드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번 시즌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첫 질문으로 올해 인천을 향한 기대치가 왜 높은지 물었다. 델브리지는 “세 가지 이유다. 작년에 좋은 경기를 많이 했고, 경기력도 좋았다. 지난 시즌 결과로 팬들의 기대치가 올라갔다. 두 번째는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선수들을 영입한 덕분이다. 개인 기량은 물론, 경험도 많은 선수들이 새로 와서 팬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준 것 같다. 우리의 목표가 높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답했다. 델브리지의 이야기대로 올해 인천에는 제르소, 신진호, 권한진 등 여러 선수가 새로 합류했다. 새 선수들과 호흡에 델브리지는 “한 주 한 주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선수들이 팀에 적응하는 것은 물론, 기존 구성원들이 그들에게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경기를 하면서 그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반대로 그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알아가고 있다. 아무리 전지훈련을 함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경기를 해보야 그 선수의 진정한 퀄리티를 볼 수 있다. 리그가 진행되면서 서로 더 잘 알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어느덧 시즌이 10경기나 지나갔다. 델브리지와 함께 시즌 초반을 돌아봤다. 델브리지는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자면, 연

패는 없었다는 점이다. 광주 전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다음 대구 전에 승점을 따면서 연패에 빠지지는 않았다. 전북 원정에서 졌지만, 그래도 바로 다음 경기에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이 긍정적이다. 우리 팀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서로한테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문제를 찾는다.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계속 소통한다. 문제 해결 의지를 모든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싶다”라고 3, 4월의 인천을 되돌아봤다.

하지만 델브리지는 칭찬만큼이나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 델브리지는 “원정 경기 결과는 아쉽다. 많은 분들이 먼 길을 와서 응원해주신다. 그 팬분들을 쓸쓸하게 되돌려 보낸 경기가 많다는 것이 마음 아프다. 나에게 화가 난다. 수비수로서 실점하는 경기가 많다는 점도 아쉽다”라고 시즌 초반의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했다.

델브리지는 올해도 인천 스리백 일원으로 시즌 최고의 공중볼 경합 능력을 자랑하고 있다. 델브리지의 공중볼 경합 성공은 K리그 모든 수비수 중 1위다. 델브리지는 “제공권 싸움을 많이 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공중볼 경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경합은 머리로 하는 것이지만, 발로 그 공의 위치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는 단순히 공중볼 경합을 많이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로 공을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자신의 공중볼 경합 비결을 설명했다.

델브리지는 수비뿐만 아니라 빌드업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스리백 중 왼쪽 센터백으로서 델브리지는 인천 공격의 주요 시작점으로도 뛰고 있다. 델브리지는 “빌드업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면서 즐기는 역할이기도 하다. 또 코치진이 바라는 역할이기도 하다. 책임감이 막중하지만, 그 책임이 주어진 것은 기쁘다. 수비수는 무조건 전방으로 패스해야 한다. 뒤로 패스하면 골키퍼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방 패스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공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에게 공을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뛰고 있다”라고 빌드업을 즐기고 있다고 전했다. 델브리지는 팀이 지고 있을 때 최전방으로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하기도 한다. 델브리

지는 “쉬운 역할은 아니다. 내가 스트라이커로 뛰는 것은 팀이 안 좋은 상황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전방에서 상대 수비수들과 경합하는 순간에는 힘들다는 것을 잊게 된다. 어떻게든 승점을 얻기 위해 집중할 뿐이다. 작년에 이 플레이로 좋은 장면을 몇 번 만들어낸 기억이 있다. 지난 시즌에 통했기 때문에 올 시즌도 안 할 이유는 없다. 내가 공격으로 올라가는 것이 감독님에게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어 기쁘다”라고 최전방에서 뛰는 플레이에 자신의 소감을 전했다.

델브리지는 올여름 개인 통산 첫 AFC 챔피언스리그 도전에 나선다. 델브리지는 “매우 기대된다. 지금까지 K리그 팀들이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결과를 냈다. 우리도 가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AFC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잘하고 싶고, 이기고 싶다. 아시아 최고의 팀들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해서 인천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AFC 챔피언스리그를 경험해본 선수들이 팀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라고 AFC 챔피언스리그에 기대감을 표했다.

공교롭게도 델브리지의 전 소속팀인 멜버른 시티도 AFC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올랐다. 인천이 플레이오프를 통과해 조별리그에 진출하게 된다면, 델브리지가 친정팀 멜버른 시티를 상대할 가능성도 있다. 델브리지는 “멜버른 시티는 친한 친구, 동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팀이다. 꾸준히 호주 A리그를 챙겨보고 있다. 멜버른 시티를 상대로 뛴다면 재밌을 것 같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이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승리하고 싶다”라고 친정팀을 상대로 승부욕을 불태웠다.



2부 - 델브리지와 한국생활

2부에서는 델브리지의 한국 생활을 이야기한다. 델브리지는 올해 인천, 그리고 한국에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했다. 델브리지는 “한국에 2년 넘게 살아서 이제 한국 생활에는 익숙해졌다. 가끔 선수들과 같이 밥 먹고, 어울리고 있다. 주변에서 나보고

반 한국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말을 듣는 것을 보니 한국에 많이 적응한 것 같다. 이제는 한국어를 더 배워보고 싶다. 조용히 한국말을 배워서 남들의 이야기를 그들은 모르게 나 혼자 알아듣는 재밌는 경험도 해보고 싶다”라고 한국 생활에 만족했다.

델브리지에게 한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묻었다. 델브리지는 “끓어 죽지 않을 정도”라며 “내 한국어 실력이 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었다. 최근에 아내가 한국에 와서 같이 식당에 간 적이 있었다. 웨이터가 어떤 말을 했는데 내가 아내에게 대략 무슨 뜻인지 설명해주었다. 그것을 본 아내가 나한테 한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그때 내 한국말이 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식당 주문은 가능해서 적어도 한국에서 끓어 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웃으며 답했다.

현재 K리그에는 1, 2부를 통틀어서 6명의 호주 선수가 뛰고 있다. 델브리지는 “호주 선수들과 꾸준히 연락은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보편적인 한국 문화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해주고 있다. 호주 선수들이 인천 원정 올 때마다 인천이 아주 좋은 도시라고 말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인천에 더 감사함을 느끼고, 애정이 생긴다. 새로운 호주 선수가 K리그에 오면, 모두가 그 선수를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다른 호주 선수들도 한국에 잘 적응하고 있다”라고 K리그의 호주 선수들과 교류를 이야기했다.

델브리지는 쉬는 날을 어떻게 보낼까. 델브리지는 “아내가 한국에 온 이후로 아내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통역관 혹은 다른 선수들과 갔던 장소에 아내를 데리고 다닌다. 아내와 함께 새로운 음식을 먹거나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델브리지는 한국 음식 애호가다. 델브리지는 “한국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매번 감탄한다. 하나를 특정해서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 매우 좋아하는 음식이 바뀐다. 최근에 굉장히 맛있는 돌솥비빔밥을 먹었다. 지난

강원 원정에서는 갈비찜을 먹었는데 그것도 맛있었다”라고 한국 음식을 칭찬했다.

델브리지는 매운 음식도 잘 먹는다면서 이와 관련한 일화를 풀었다. 델브리지는 “한국인들은 정이 많아서 항상 챙겨주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식당에서 매운 음식을 시키면 종업원분들이 놀라서 ‘이거 매워요’ 아니면 ‘스파이스 스파이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때마다 괜찮다고 달라고 말씀드리면 항상 놀라신다. 예전에 마라탕을 먹은 적이 있는데 맛있게 먹었다”라고 매운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반대로 델브리지에게 고구 호주의 음식이나 문화를 인천 팬들에게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 델브리지는 “팬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다. 호주 음식은 패스트푸드 색 같이 짭아서 한국 음식에 비하면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 추천을 하면, ‘미트파이’(Meat pie)다. 파이 안에 다진 고기를 채운 음식이다. 이것을 추천하는 이유는 호주에서 미트파이는 주로 축구 경기, 특히 추운 날이나 야간 경기를 볼 때 많이 먹기 때문이다. 손 위에 따뜻한 미트파이를 올려놓고 먹으면서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이 호주 문화다. 가끔 대형 마트에 호주 제품을 팔 때가 있는데 그것들도 한 번 맛보기를 추천한다”라고 호주 음식 문화를 추천했다.

델브리지는 최근 경사를 맞이했다. 바로 아내의 임신이다. 델브리지는 “축구 인생에서 가족은 가장 큰 동기부여였다. 가족 구성원이 한 명 더 생기는 만큼 책임감도 더 커졌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동기부여다”라고 뱃속의 아이를 위한 각오를 전했다.



3부 - 델브리지와 인천유나이티드

델브리지에게 인천유나이티드는 어떤 팀일까. 델브리지는 주저함 없이 “가족”이라 답했다. 델브리지는 “아내가 한국에 없었을 때, 선수들이 혼자였던 나를 많이 챙겨주었다. 인천 선수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인천 팬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다.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셔서 가족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선수, 통역관, 팬 등 주변에서 보내준 도움들 덕분에 인천을 가족처럼 느끼게 되었다”라고 인천에 감사함을 전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델브리지는 인천 최고의 수비수를 상징하는 등번호 20번을 달고 있다. 델브리지는 “20번이라는 등번호가 인천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다. 동시에 책임감을 가지게끔 하는 번호이기도 하다. 임종용 실장님이 20번을 달고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잘 알고 있다. 등번호가 지닌 의미를 이어가고 싶다”라고 인천의 등번호 20번으로 뛰는 소감을 전했다.

델브리지에게 이번 시즌 목표를 물어봤다. 델브리지는 “모든 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성적을 내는 것”이라며 “리그에서는 적어도 작년만큼의 순위에 있어야 한다. AFC 챔피언스리그는 우선 조별리그 진출이 목표다. 그 이후에는 갈 수 있는 곳까지 가보고 싶다. FA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있을 한 경기 한 경기에 중점을 두고, 집중하는 것이다. K리그에는 만만한 상대가 단 한 팀도 없다. 좋았던 시절만 떠올리면서 먼 미래만을 바라보면 목표를 이루기 힘들 것이다. 몇 달 뒤의 상황보다 바로 다음 경기에 더 집중해야 한다”라고 2023시즌 목표를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델브리지는 “이 인터뷰를 봤다는 것은 매거진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즉 경기장에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장에서 이 인터뷰를 볼 팬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경기장에 찾아와 주시고, 인천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수단은 경기가 끝나고 팬들과 승리 세리머니를 할 때 가장 기쁘다. 그 기쁨을 이번 경기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최대한 많이 팬들과 같이 누리고 싶다. 팬들과 함께 승리 세리머니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팬들에게 메시지를 남기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편집자 주 : 지난 5월 1일 델브리지의 득점 소식! 들려왔다!)



프로 4개월 차, 신인 박승호가 달리는 현재와 꿈꾸는 미래

글 = 성의주 UTD기자 (sung.euju.shin@gmail.com)

2023시즌은 최근 몇 년 중 인천에 입단한 신인 선수가 가장 많은 해였다. 무려 여덟 명이 인천에 이름을 올렸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데뷔한 선수가 있다. 박승호가 그 주인공이다. 데뷔하기 전부터 U-20 대표팀에 꾸준히 소집되며 인천팬들에게 이름을 알린 박승호는 5라운드 대구FC와의 홈경기를 통해 데뷔전을 치르며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다. 신인의 패기와 설렘으로 가득 찬 박승호를 UTD 기자단에서 만나봤다.



‘최고의 유망주’ 박승호가 오고 싶었던 인천

박승호는 최고의 유망주 중 한 명이었다. 용인시축구센터 U-18 덕영에서 고교 시절을 보낸 그는 언제나 핵심 공격수로서 팀의 승리에 앞장섰다. 들어올린 트로피도 여럿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2020년에는 두 번의 우승과 두 번의 준우승을 했고, 특히 금강대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는 베스트영플레이어상도 수상했다. 3학년 때도 두 번의 대회에서 트로피를 들었다. 그중 청룡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는 득점상도 수상했다.

최고의 고교 시절을 보낸 박승호지만 프로 입단 전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시기는 고교 졸업 이후, 단국대학교에서의 1년이라고 밝혔다. “고등학교에서도 좋은 추억들이 많지만 그래도 대학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어서 그런 것 같다. 함께 뛰었던 친구들에게 의지도 많이 했다.” 상승세만 있었을 것 같았던 박승호를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 바로 모든 유망주의 고민인 ‘프로 입단’이었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바로 프로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러질 못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 그 여파가 좀 있

었던 것 같다. 프로에 가야 한다는 마음이나 의지가 강해서 힘들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아쉬움을 풀듯 박승호는 대학에서 활활 날았다. 경기 출전 기회를 잡기도 힘들다는 1학년이었지만 박승호는 리그 16경기 중 15경기에 출전했다. 박승호가 활약한 단국대는 아주대학교, 인천대학교 등 쟁쟁한 팀들이 경쟁하는 U리그 2권역에서 권역 우승을 차지했다. 일등공신은 박승호였다. 그는 단국대가 기록한 56골 중 15골을 넣으며 팀 득점의 1/4을 책임졌다. 단국대가 대학 축구 최고의 명예인 왕중왕전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박승호의 활약 덕분이었다. 그는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헤트트릭을 터트리며 에이스가 무엇인지를 보여줬다. 최고의 활약을 펼친 박승호는 대학 입학 1년 만에 프로로 향하게 됐다. 박승호는 “1년 더 하고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즌 말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덕분에 조성환 감독님께서 불러 주셨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전부터 인천을 ‘오고 싶은 팀’이었다고 밝힌 바 있던 박승호는 “프로 오기 전부터 K리그를 보면서 나랑 가장 스타일이 잘 맞는 팀이라고 생각했다. 공수 전환이나 공격적인 축구와 수비적인 축구가 같이 되는 모습이 나한테 잘 맞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했고, 주변에서도 잘 맞을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해줬다.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축구를 하면서 인천 경기도 많이 봤고, 오고 싶다는 생각도 계속했던 것 같다. 마침 조성환 감독님이 불러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바로 오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깜짝 선발 데뷔전’ 박승호 “데뷔전은 아쉬울뿐”

그렇게 인천에 입단한 박승호는 개막 후 다섯 경기 만에 데뷔전을 치렀다. 5라운드 대구FC와의 홈경기였다. 박승호는 깜짝 선발로 나서며 전반전을 치르고 하프타임에 교체됐다. 그는 “출전할 것 같다는 얘지만 들었지 명단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경기 이틀 전에 알았다. 신인 선수가 많았는데 불구하고 첫 번째로 기회를 주신 감독님께 정말 감사했다. 인천에 입단하면서 목표로 했던 게 신인 중 가장 먼저 데뷔하는 것이었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져서 정말 기뻐다”고 말했다. 당찬 포부가 담긴 신인의 목표였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건지 묻자 박승호는 “자신이 있다가보다 일부터 그렇게 목표 설정을 했었다. 그래야 스스로 자극하면서 성장할 수 있고 주변 선수들과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데뷔전을 앞두고 조성환 감독에게는 ‘달라지는 거 없다’는 특별한 조언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조성환 감독님께서 데뷔전을 잘해도 못해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고 마음 편하게 경기하라는 말을 해주셨다. 나한테는 그 말이 도움이 많이 됐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말했다. 그래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것이 데뷔전이었다. 박승호는 “데뷔전에서는 당연히 긴장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었다. 경기장 가는 버스를 탈 때가 가장 긴장했던 것 같고 오히려 버스에서 내리고부터는 오히려 괜찮았다. 라커룸 들어가고 몸 풀고 할 때까지도 괜찮았는데 경기 시작 직전부터 다시 긴장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스로 만족하지는 못한 데뷔전이었다. 박승호는 “내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팬분들에 죄송했다. 경기를 뛰면서도 계속 아쉽다 좀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 경기 끝나고도 아쉬운 마음이 가장 먼

저 앞섰다. 점수를 매기자면 10점 만점에 5, 6점 정도만 줄 수 있을 것 같다.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보여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렇다.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컸다. 신인답게 좀 더 패기 있는 모습을 더 보여드리고 싶었고, 공격수다 보니 골을 넣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퍼포먼스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하고 수비하는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팬분들에게 죄송하고 스스로 많이 아쉬웠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두 번째 출전 기회도 빠르게 찾아왔다. 보름 만이었다. 7라운드 강원FC와의 원정 경기 후보에 이름을 올린 박승호는 후반 44분 투입되어 추가시간 포함 약 10분의 시간을 소화했다. 박승호는 “원정에 따라갈 거라고 예상 못 했는데 명단에 내 이름이 있어 놀랐다. 보자마자 기회가 생기면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데뷔전보다는 확실히 덜 긴장됐던 것 같다. 사실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이 아니다. 데뷔전은 아무래도 첫 경기다 보니 긴장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긴장보다는 팀이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컸다. 원정 가는 내내 형들을 응원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두 번째 기회는 10분, 무언가를 보여주기에 매우 짧았다. 아쉽고 실망이 클 수도 있었지만 박승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는 “아쉽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정말 원정길에 같이 오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승호가 소화한 시간은 짧았지만 충분히 좋았다. 오프사이드로 취소되긴 했으나 신진호 골의 기점이 되기도 했다. 박승호는 당시를 떠올리며 “(신)진호 형 골 직전 상황은 내가 볼 터치 실수로 볼을 뺏겨서 바로 수비를 하는 상황이었다.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볼을 간절하게 다시 뺏아와야겠다는 생각만 있었던 것 같다”며 겸손함을 보였다. 두 번째 출전은 박승호에게 또 다른 기회였지만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경기이기도 했다. 박승호는 “프로 와서 된 경기 중 처음으로 승리했던 경기라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보여드린 것 같아서 데뷔전보다는 만족스러웠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아쉬움을 달고 미래로, 박승호가 나아갈 다음 단계

프로 입단과 데뷔까지 좋은 기억만 가득할 것 같은 날들이지만 아쉬운 순간도 있었다. 2023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최종 명단에 들지 못한 것이었다. 훈련에는 꾸준히 소집되었으나 최종 엔트리 23명을 추리는 과정에서 박승호는 김은중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박승호는 “실망을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그래도 실망한 시간은 짧고 더 잘해서 다음에 가야겠다는 의지가 더 앞섰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것처럼 기회는 남아있다. 5월에 열릴 U-20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다. 박승호는 이에 대해 강건한 목소리로 의욕을 보였다. 그는 “당연히 욕심이 있다. U-20 월드컵에 가는 것을 꿈꾸고 그에 대해 혼자 계획을 많이 세워왔다. 꼭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프로의 이름을 단지 약 4개월이 지났다. 박승호는 “확실히 프로팀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 힘든 게 있다. 그래도 목표했던 곳에 왔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힘든 프로 생활이지만 좋은 점도 명확하다. 박승호는 “프로 입단 후 가장 좋은 것은 K리그를 보면서 중계로만 보던 많은 선배들과 함께 운동하고 경기를 뛸 수 있다는 점이다. 함께 필드에 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극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리고 아무래도 프로 생활을 하다 보니 월급을 받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첫 월급은 어머니께 드렸다. 어릴 때부터 버티 리스트였던 걸 이번에 실현했다”며 웃었다.

수원이 고향인 박승호는 인천에 입단 후 클럽하우스에서 지내고 있다. 바뀐 환경이 적응을 힘들게 하지 않는지 묻자 박승호는 “환경이 바뀐 건 맞지만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뀐 거라 나한테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훨씬 좋다. 휴식도 잘 취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클럽하우스의 룸메이트는 U-20 대표팀 동료이기도 한 박현빈이다. 동갑이기도 한 만큼 가장 친한 팀 동료이기도 하다. 박승호는 “인천에 처음 합류할 때 U-20 대표팀 훈련 때문에 다른 신인 선수들보다 조금 늦게 합류했

다. 혼자라서 많이 어색하긴 했는데 (박)현빈이가 많이 도와줬다. 덕분에 형들이랑도 금방 친해지고 팀에도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박승호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또 다른 선수가 있었다. 작년 인천에 입단한 민경현이 그 주인공이다. 두 사람은 용인시축구센터 U-18 덕영의 전신인 신갈고등학교에서 함께 뛰었던 경험이 있다. 박승호는 민경현에 대해 “선배 중에서는 가장 친하다. 힘든 얘기도 많이 하고 가장 의지하는 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데뷔전을 치르기 전에도 민경현에게 조언을 구했다. 박승호는 “데뷔전 치르기 전에 (민)경현이 형한테 많이 이것저것 물어봤다. 데뷔전을 치를 때는 어떤 느낌인지, 긴장은 됐는지 그런 걸 많이 물었던 것 같다. 긴장을 덜려고 물어봤던 건데 형이 긴장은 될 거라고 답해서 오히려 더 긴장했던 기억이 있다”며 웃었다.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적응하는 중인 박승호는 경기장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며 점차 프로로서 성장해가고 있다. 인터뷰에서 보여준 박승호는 목표가 뚜렷하고 원하는 것이 명확한 선수였다. 신인 중 가장 먼저 데뷔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혔으니 1차 목표는 이룬 셈이다. 그다음 목표는 뭘까. 박승호는 “꾸준히 경기를 뛰는 것. 그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수치로는 올 시즌 15경기는 뛰고 싶다. 골은 상황마다 다른 거라서 목표가 있기보다는 출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후에는 팀에서 항상 출전하는 이미지가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 활동량 면에서 뒤처지지 않고, 골도 넣고 수비도 열심히 하는 선수로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최종 목표는 역시 해외 진출이었다. 박승호는 “K리그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증명된 후에는 해외 무대에도 도전해 보고 싶다. 가장 많이 챙겨 보는 리그가 프리미어리그라 그 무대에 도전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다”며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승호는 팬들에게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팬들께서 많은 응원 메시지를 보내 주셨다. 그런 걸 보며 하루하루 훈련도 열심히 하고 힘을 내고 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인천의 빅브라더에서 스카우트로 김광석, “인천에서 받은 것 이상으로 이바지하겠다”

글 = 주대은 UTD기자 (ju_dann@naver.com)



451경기 11골 5어시스트. 모두가 인정하는 K리그 레전드. 주변 선수들이 은퇴를 선택할 때 김광석은 그라운드에서 싸웠다. 38살에 인천유나이티드로 이적한 그는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 경기장 안에서 나이는 가장 많았지만, 누구보다 열정이 넘치는 수비로 인천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김광석은 2022시즌을 끝으로 축구화를 벗었다. 21년 동안 451경기에 나서며 K리그 통산 출전 9위에 올랐다. 2003년부터 쉬지 않고 달려온 여정이 끝났다. 남들보다 늦게 축구부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라운드에서 가장 오래 남은 건 김광석이었다.

“축구선수로 21년 동안 활동한 게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이제는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다른 선수들은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다. 늦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오래 하다니 정말 감사한 일밖에 없는 것 같다.”

김광석도 자신이 또래 선수들보다 훨씬 긴 선수 생활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도 처음부터 늦은 나이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가려고 하진 않았다. “은퇴 위기는 35살 이후 매번 있었다. 많은 선수가 35살까지 선수 생활 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35살 이후부터는 내려놓을 생각이었다. 그러다가 1년만 더 하자, 1년만 더 하자’ 하다 보니 5년을 더해버렸다.(웃음)”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선수 생활을 오래 했다고 느꼈다. 구단과 감독님을 잘 만나

다 보니 연장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축복 받은 거다. 은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준비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안 되는 것들이 생기더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다.”

인천은 김광석이 있는 동안 조기 잔류부터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 역사를 새로 썼다. 그는 인천에 몸담았던 시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떠올렸다. “첫 승했을 때가 기억에 가장 남는다. 축구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적한 팀이었는데, 인천은 항상 첫 승이 좀 늦었던 팀이었다. 다들 간절하게 준비했다. 나도 일찍 첫 승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강했다. 이적 후 첫 승은 정말 이지, 잊을 수가 없다.”

그라운드에서 뛰는 동안 김광석이 원한 건 대단한 커리어와 많은 트로피가 아니었다.

“예전부터 팬들과 같이 뛰는 선수들한테 인정받고 싶었다. 은퇴할 때쯤엔 ‘김광석’ 하면 ‘열심히 하고 공 잘 찼던 선수’로 기억에 남고 싶었다. 목표의 반 정도는 이룬 것 같아서 행복하다. 그걸 이루고 싶어서 많이 노력했다.”

K리그 레전드이자, 인천에서 큰 족적을 남긴 만큼 은퇴식도 성대했다. 지난 8라운드 수원FC와 홈 경기 시작 전에 진행된 은퇴식엔 8,215명의 관중이 모여 박수를 보냈다. 인천 팬들은 김광석의 등번호였던 3모양의 풍선을 흔들며 그를 기억했다.

“과분하게 해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현대받고 떠나도 되나 싶다. 은퇴식까지 할 줄 몰랐다. 잘하는 선수가 너무 많아서 그저 그런 선수, 화려한 선수가 아니었는데. 크게 은퇴식 열어주셔서 감사하다.”

김광석의 선수 생활을 기리는 건 은퇴식만이 아니었다. 한 팬은 인천 1호선 문학경기장역 광고판에 김광석의 은퇴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띄우기도 했다. 사실 문학경기장은 김광석의 축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었다. “문학경기장은 나에게 특별한 곳이다. 프로 데뷔골을 문학경기장에서 넣었다.”

“소위 말하는 ‘주위 먹기’로 골을 넣었다. 그 골 어시스트가 지금 인천의 박용호 코치님이었다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 그때는 인천에서 뭘 거라고 상상도 못 했다. 당연히 스카우트는 생각지도 못했다.”

“문학경기장에 내 은퇴를 축하해 주시는 팬의 광고판을 보고 정말 감사했다. 가족들과 직접 가서 보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우리 아이들은 ‘아빠, 왜 아빠가 여기 있어?’라며 묻더라. 그래서 ‘너희가 몰라도 아빠는 꽤 훌륭한 선수였어’라고 이야기했다.(웃음)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만약 서른 살 중후반에 은퇴했으면 많이 후회했을 것 같다. 근데 마흔 살이 넘을 때까지 해보니까 확실히 후회는 없다. 이제 는 다음 스텝을 생각한다.”

인생의 절반을 축구선수로 살아온 김광석. 그에게 축구선수가 아닌 삶에 대해서 물었다. “생활적인 부분이 좋다. 왜냐하면 나는 서른 중반부터 마흔까지 고참으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젊어져야 하는 것도 많았다. 어린 선수들을 다독여야 하고 코치진의 이야기도 들어야 했다. 팀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는 고참의 책임도 있다. 그런 부분이 힘들었다. 지금은 그런 걸 다 내려놓아서 편하다.”

은퇴 직후 김광석은 잠깐의 휴식도 없이 축구장에 남았다. 이제는 선수가 아닌 인천의 스카우트로 활동하게 됐다. 설 생각도 있었지만 김광석은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사실은 쉬는 게 우선이었다. 충전할 시간이 필요했다. 가족들과 여행도 좀 다니고, 아이들 응원시키고 아내와 여유롭게 커피 한잔하면서 즐기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나는 운이 좋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다. 전담수 대표님, 조성환 감독님, 임종용 실장님이 지도자를 할 거면 그냥 쉬는 것보다는 외적으로도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조언해 주셨다. 나는 사실 큰 계획이 없었다. 축구 선배님이기도 하지만 인생 선배님들이 나보다 아시는 게 많지 않다. 날 생각해 주신다는 게 감사했다. 쉬는 건 65세 이후부터 쉬는 거라고 하셨다. 내가 이런 자리를 받기도 죄송하면서도 감사했다.”

현재 김광석은 스카우트 업무와 2군 보조 코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스카우트 업무를 주로 수행하지만, 외근을 나가지 않을 때는 2군 보조 코치 역할을 하고 있다. “스카우트는 우리 유스 선수, 우선 지명 선수, 임대 선수 체크를 주로 한다. 리그, 대회 때 가서 선수들을 체크해서 보고서를 구단에 제출한다.”

“아직은 스카우트가 어색하다. 옷을 잘 입고 다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아직 많이 배우는 중이다. 성실하게 하면 내가 원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다. 새로운 사회에 나온 거라고 생각한다. 그거에 적응하고 있다. 신인의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2군 코치일 때는 주로 보조를 하고 있다. 어린 선수는 운동시키면 그냥 하는 경향이 있다. 어린 선수들에게 운동을 왜 하는지, 스케줄이 왜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지, 컨디션 관리하는 법을 알려준다. 아, 1군에 올라갔을 때 살아남는 법 같은 것도 알려준다. 어린 선수들이 1군과 훈련하는 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 아닌가. 은퇴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실용적인 조언을 하는 편이다.”

“스카우트로서 목표? 지금은 내가 뽑은 선수들이 잘 되고, 국가대표까지 하는 게 목표다. 인천에서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이바지하고 싶다.”

한편 김광석이 떠난 인천은 이번 시즌 유독 실점이 많다. 지난 시즌에 비해 수비진은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팬들은 김광석 스카우트가 그라운드로 돌아와야 한다는 농담을 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다. 아직도 날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내가 후배를 잘할 키운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선수 때 후배들에게 잘못된 걸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나 생각도 한다.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 좋지 않은 분위기를 전환하는 방법도 가르쳐줘야 하는데, 그런 걸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것 같다.”

인터뷰 막바지, 김광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묻자 김광석은 잠시 고민에 하더니 입을 열었다. “시즌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될 수도 있다. 팬들도 답답하실 것 같다. 그래도 해오시던 것처럼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팬들의 응원이 선수단에 상상 이상으로 큰 힘이 된다. 특히 어린 선수들은 응원의 한 마디로 인해서 더 성장하기도 한다.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IUFC BLUE MARKE_⚓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찾아주신 팬 여러분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 및 리뉴얼 오픈하였습니다!



📍 블루마켓 매장 위치

인천축구전용경기장 GATE-WG7 옆
기존 블루마켓 2층 (구 스카이라운지)

※기존 블루마켓 입구로 입장 후 내부 계단을 통해 2층 블루마켓으로 이동

🕒 운영 시간

경기 시작 2시간 30분 전 ~ 경기 종료 후 30분

※경기 중에는 매장 재정비를 위해 운영하지 않습니다. (하프타임 매장 이용 가능)

www.incheonutdmarket.com

온라인 블루마켓은 365일 OPEN

📷 @incheonutdmarket

💬 @IUFC 블루마켓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INCHEON UNITED F.C.

iiii



다시, 비상

인천유나이티드 F.C.
2003 _⚓ 2023

2023. 4. 4.^{Tue} - 6. 18.^{Sun}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